

유럽은행 리스크 평가 및 향후 전망

오태현 구미·유라시아본부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044-414-1159)

차 례

1. 유럽은행 리스크 관련 주요 현황
2. 은행 리스크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3. 평가 및 향후 전망

주요 내용

- ▶ 2018년 1월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7년 2/4분기 EU 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4.6%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p 감소한 것으로 2012년 이후 최저수준임.
 - 모든 EU 회원국에서 부실채권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 부실채권의 비율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룩셈부르크의 부실채권 비율은 0.7%인 반면 그리스는 46.9%로 대조적임.
- ▶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은 부실채권 축소가 은행 리스크 개선에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3월에 발표된 유럽중앙은행의 부실채권에 관한 지침(guidance)은 NPL 전략, 관리 및 운영, 회수유예(forbearance), 대손충당 및 상각, 담보평가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EU의 은행규제 및 정부보조 원칙하에 운영되는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ies) 설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 EU 차원의 자산관리회사는 정보와 투명성 개선을 통해 부실채권 유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부족 위험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인 건전성 방어조치(statutory prudential backstop)를 도입하기로 하고, EU 차원의 공동의 대손충당금 기준과 부실노출액(NPE) 개념을 도입함.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역내 은행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2년에 제안된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연내 완성을 목표로 단일예금보험제도, 재정방어벽, 국채담보부채권의 도입이 향후 추진과제로 발표됨.
 - [단일예금보험제도, EDIS]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도입되는 단일예금보험제도는 예금보험제도 보장단계(1단계) 및 공동보장 단계(2단계)를 수정하고, 회원국별 예금보험제도와와의 조화를 추진함.
 - [재정방어벽] 단일정리기구(SRM) 설립과 함께 조성된 단일정리기금(SRF)을 지원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방어벽(fiscal backstop)이 도입됨.
 - [국채담보부채권, SBBS] 2018년 중 입법안이 예정되어 있는 국채담보부채권은 은행재무제표 다변화를 통해 재무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 중임.
- ▶ 2012년 이후 유럽은행의 가장 큰 불안요인 중 하나인 부실채권의 지속적인 축소 및 유럽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은 긍정적임. 그러나 다른 주요국 및 EU의 위기이전과 비교할 때 리스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유럽은행 리스크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 금융 및 국채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와 은행디폴트 가능성이 2017년 중 낮게 유지됨. 2018년 중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EU 및 회원국 차원의 은행 리스크 정책대응 노력 결과에 따라 유럽은행 리스크의 추가적인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1. 유럽은행 리스크 관련 주요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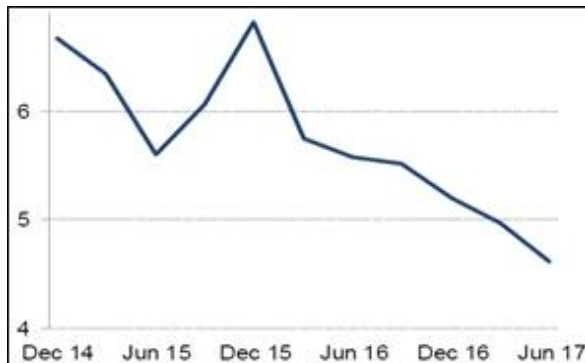
가. 부실채권(NPL)

■ 2018년 1월에 발표된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EU 역내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¹⁾

- 2017년 2/4분기 EU 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4.6%로 전년동기대비 1%p 감소했으며, 이는 2012년 이후 최저수준임.²⁾
- 부실채권 규모 또한 2015년 1조 1,370억 유로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6년 9,590억 유로, 2017년 2/4분기에는 8,930억 유로를 기록함(그림 2 참고).
- 2017년 2/4분기 부실채권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6% 감소했으나, 여전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그림 1. EU 역내 부실채권(NPL)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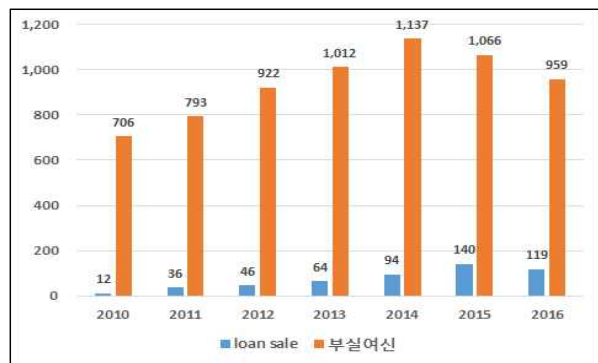
(단위: %)



주: 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a), p. 3.

그림 2. 부실채권 및 loan sale 규모³⁾

(단위: 십억 유로)



주: loan sale은 부실채권을 할인된 금액으로 매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
자료: Lehmann(2018), p. 5.

■ EU 모든 회원국에서의 부실채권 비율은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별 부실채권 비율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부록 표 1 참고).

- EU 28개 회원국 중 10개국의 NPL 비율은 3%를 하회한 반면, 9개국에서는 NPL 비율이 10%를 초과함.
- 룩셈부르크의 부실채권 비율은 0.7%로 가장 낮으며, 그리스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6.9%를 기록함.
- [이탈리아] 2016년 6월 16.2%였던 부실채권 비율은 2017년 6월 12.2%로 축소됨.
- 부실채권의 증권화를 통해 이탈리아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1) European Commission(2018a), "First Progress Report on the Reduction of Non-Performing Loans in Europe," COM(2018) 37 final.
2) 높은 부실채권 비율은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은행 차원의 관리비용, 법률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은행 수익성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
3) Alexander Lehmann(2018), "Risk reduction through Europe's distressed debt market," Policy Contribution Issues n. 2. Brueg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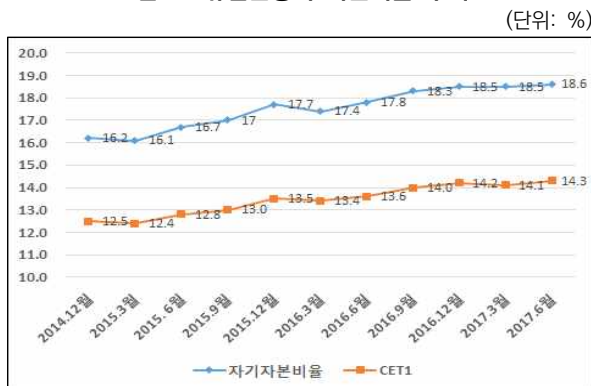
- 이탈리아는 부실채권의 증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수목적회사(SPVs, Special Purpose Vehicles)의 권한을 확대 시킴으로써 ① 잔여 대출금 상환 촉진을 위한 대출 가능 ② 담보대출용 담보 구매 ③ 부실 금융기관에서 특수목적 회사로의 부실채권 이전절차 간소화 등이 이루어짐.
- [스페인] 2016년 6월 5.9%였던 부실채권 비율은 2017년 6월 5.3%로 축소됨.
 - 소비자 대출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부실채권 비율이 축소됨. 단, 비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중 2017년 9월 기준 건설(25.2%) 및 부동산(20.8%) 분야의 부실채권 비율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스페인 2대 은행인 산탄데르와 BBVA가 총 430억 유로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매각할 예정이며,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부실채권 비율이 추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스페인 은행의 비용수익비율(CIR: Cost-to-Income Ratio)이 2016년 말 52.9%에서 2017년 6월 50.9%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부실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포르투갈] 2016년 6월 17.6%였던 부실채권 비율은 2017년 6월 15.5%로 축소(이 기간 부실채권 규모는 80억 유로 축소)되었으며, 포르투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됨.
 - 금융기관의 비사법적 구조화를 위한 제도 마련, 채권추심기관의 진입규제 완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재인 도입 등의 정책이 시행됨.
 - 포르투갈 정부는 부실채권 축소를 위해 ① 법, 조세 및 관련 분야 개혁 이행 ② 건전성 감독 이행 ③ NPL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임.
- [그리스] 2016년 6월 47.2%였던 부실채권 비율은 2017년 6월 46.9%로 축소되었으나, 구조개혁프로그램의 이행 지연 및 제3차 구제금융의 이행평가 협상 연장에 따라 감축속도는 부진함.
 - 민간부문 부실채권 비율은 오히려 2016년 6월 50.1%에서 2017년 6월 50.6%로 소폭 증가함.
- [아일랜드] 2016년 6월 14.6%였던 부실채권 비율은 2017년 6월 11.6%로 축소되었으며, 대출 재구조화 방식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됨.
 - 2013년 부실채권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60% 이상(500억 유로) 감소하여, 2017년 9월 기준으로 총부실채권 규모는 340억 유로임. 부실채권 중 65%는 주택담보대출이며, 이 중 45%는 이미 재구조화되었음.
 - 아일랜드의 부실채권 축소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주택담보대출 채납자를 위한 전문가 자문서비스인 Abhaile Scheme이 지난 2016년 말 마련되어 법적재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Mortgage-to-Rent 계획에 따라 공공주택 입주자 및 주택담보대출 채납자를 지원하는 iCare/AIB Housing 프로젝트도 운영 중이므로 때문에 향후 부실채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키프로스] 2016년 6월 37.6%였던 부실채권 비율은 2017년 6월 33.4%로 축소되었으며, 다른 회원국과 달리 중소기업 대출 및 소규모 모기지 대부업체에서의 부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특징이 있음.
 - 키프로스 정부는 부실채권 감축을 위해 지급불능 처리절차에 대한 새로운 법규 마련, 담보집행 개선, '新론세일(loan sale)' 제도,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독행위 등을 시행함.
 - 특히 지급불능 절차가 좀더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하고 2018년 말까지 개선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슬로베니아] 2016년 6월 16.3%였던 부실채권 비율은 2017년 6월 11.4%로 축소됨.
 - 슬로베니아의 경우 민간부문의 부실채권 비율이 크게 개선된바, 같은 기간 21.2%에서 14.7%로 축소됨.

나. 자본요건 및 은행 수익성

■ 유럽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capital ratio)은 꾸준히 개선되면서 2017년 6월 기준 18.6%를 기록했으며, 핵심자기자본 비율(CET1 ratio)도 14.3%를 기록함(그림 3 참고).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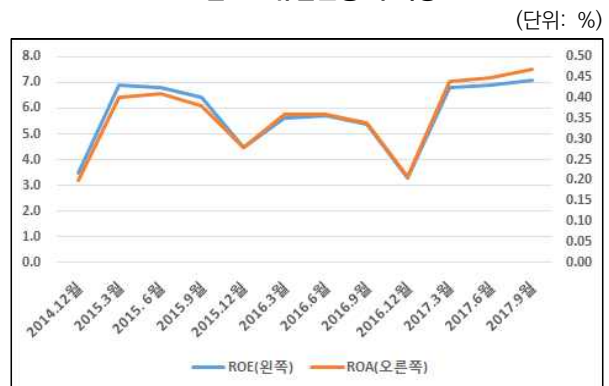
- 단일규제를 통해 은행에 대한 감독과 건전성을 강화해나가고 있는 EU 집행위원회는 은행들의 자본요건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자본요구지침(CRD IV)에 따르면, EU는 자본의 질적 요건 강화, 유동성 관리 강화, 레버리지 비율 제한, 리스크 관리 강화, 단일규제 적용의 5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관리 감독함.
- 최근 자기자본비율과 핵심자기자본비율이 EU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바, 유럽은행들이 자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은행에 긍정적인.
- 특히 높은 부실채권 비율은 은행들의 필요자본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으나, 최근 부실채권 축소로 인해 필요자본을 은행의 신규 대출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함.

그림 3. 유럽은행의 자본비율 추이⁵⁾



자료: EBA DB(검색일: 2018. 3. 7).

그림 4. 유럽은행 수익성



자료: EBA DB(검색일: 2018. 3. 7).

■ 유럽은행들은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및 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기조로 인해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2017년 들어 자기자본수익률(ROE, Return on Equity)과 자산수익률(ROA, Return on Asset)이 모두 개선됨(그림 4 참고).

- 유럽은행협회(EBA)는 수익성 개선의 원인으로 EU의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서 기인한 은행들의 부실채권 감소를 지적함.
- 특히, 높은 부실채권의 축소가 은행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ECB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함.
- ECB의 비토 콘스탄치오 부총재는 ECB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부실채권이 수익여신으로 대체될 경우 유로지역 은행들의 수익성이 3년에 걸쳐 최대 5%p 증가한다고 언급함.⁶⁾

4) EU 집행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자기자본요건을 규제하는 자본요구지침(CRD: Capital Requirement Directive)과 자본요구규정(CRR: Capital Requirement Regulation)을 통해 글로벌 기준인 바젤 III를 반영함.

5) EBA(European Banking Association, 유럽은행연합)(2017), *Risk Assessment of the European Banking System*. (November)

2. 은행 리스크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가. 부실채권 축소 및 개선 정책

- [NPL 지침] 2017년 3월 유럽중앙은행(ECB)은 부실채권에 관한 지침(guidance)을 발표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EU 역내 은행들로 하여금 부실채권을 축소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지침을 제시함.⁷⁾
 - ECB의 NPL 지침은 구속력을 갖지 않으나 감독기관의 요청에 따라 은행들은 성실히 답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요 은행들은 단일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의 검토 및 평가 대상으로, 필요 시 감독기관의 감독절차를 적용받음.
 - 이번 지침은 크게 NPL 전략, NPL 관리 및 운영, 회수유예 관련 주요 지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NPL 전략] 은행들은 NPL 감축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평가] 운영환경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부실채권의 증권화를 포함한 NPL 리스크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 [전략개발] 달성 가능한 부실채권 축소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실행 가능한 조치에 대한 분석을 실시
 - [계획실행] 조직 및 역량을 NPL 축소정책 이행에 집중
 - [전략내실화] 조직 내에서의 NPL 전략에 대한 논의 활성화 및 책임과 의무의 명확한 배분, 감독자에 대한 보고 체계화 등을 추진
 - [NPL 관리 및 운영] 효과적으로 NPL를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시 다음에 집중함.
 - 리스크 관리 기능의 독립성 유지가 중요하며, 담당 부서가 리스크 관련 정책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정책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담보되어야 함.
 - 특히 NPL 비율이 높은 은행들은 NPL 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지불유예, 재구조화, 유동화 등)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조치별 담당 부서를 운영해야 함.
 - NPL 관련 조기경보체제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함.
 - [회수유예] 회수유예(forbearance) 조치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안이 고려되어야 함.
 - 최선의 회수유예전략을 결정하기 위한 분류분석모형(일명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 활용
 - 복수의 회수유예조치 시, 리스크 통제 및 주요 상위 정책결정회의체(senior decision-making board)의 명시적인 승인 필요
 - [NPL 인식] 은행들은 유럽은행연합(EBA)의 부실채권 기준에 근거한 NPL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국제회계기준)9의 발효에 맞춘 NPL 기준 마련
 - [대손충당 및 상각] 은행들은 대손충당 및 상각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결정 이행을 위한 절차가 수립되어 있어야 함.

6) Vitor Constâno(2017), *Resolving Europe's NPL burden: challenges and benefits*. (Feb 3)

7) ECB(2017), *Guidance to Banks on non-performing loans*.

- 건별 및 그룹별 대손충당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은행의 리스크 관리 체제와 통합함.
 - 영업현금흐름(OCF, Operating Cash Flow) 산정 시 최소기간을 5년으로 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10년이 적용
 - 보증 및 대출약정과 같은 부외거래는 물론 금융자산의 손상(impairment loss) 파악, 감독기관 보고 및 공시 등의 관련 이슈도 논의가 필요함.
- [담보평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의 순환적 적용, 모기지 대출 가치 기준 활용, 백테스팅(Back-Testing)과 같은 다양한 담보평가방법이 제시됨.8)

표 1. ECB의 NPL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⁹⁾

전략안	특징	장점	단점
상각 (write-off)	부실채권 상각, 잠재적 추기손실의 위험 해소	개별 대출건별로 처리 가능	높은 손실률
판매 (sale)	NPL 전문투자기관으로의 판매, 익스포저의 경우 재무제표에서 삭제되거나 부외거래로 이전	상각보다 높은 회수 및 건별 재무제표에서 삭제	투자기관과의 협상 필요 및 상당한 손실 가능
회수유예 (forbearance)	회생기회를 통해 무수익여신을 수익여신으로 전환	개선가능	더 높은 익스포저 리스크
워크아웃 (workout)	회생가능이 높은 채무자/기관에 대한 채권 재조정	높은 회수율	많은 시간과 노력 및 인적자원이 요구
익스포저 교환 (change of exposure)	압류, 부채출자전환, 담보대체	회수에 긍정적	추기손실의 가능성
법적행동 (파산절차)	지급불능소송절차 및 회해를 통한 해결	회수에 긍정적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결과의 불확실성 상존

주: 부채출자전환(Debt-to-Equity Swap)은 부채를 유가증권이나 주식지분으로 상각하는 것을 의미
자료: PWC(2017), pp. 6-7의 자료 요약정리.

- [부실채권에 관한 행동계획] 2017년 7월 EU 이사회는 은행부문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당시 높아진 부실채권 비율의 축소 및 신규 부실채권 누적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함.¹⁰⁾

- [은행감독]

-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European Systemic Risk Board)는 2018년 말까지 역내 은행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NPL 문제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개발함.
- 동시에 자산의 질(asset quality)과 관련한 강화된 공시여건을 이행하기 위해 유럽증권감독청(ESMA,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과의 협력이 강조됨.

- [지불불능 및 부채정리]

- 2018년 말까지 NPL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에서 덜 중요한(less significant) 은행으로 확대함.
- 2018년 여름까지 유럽은행연합(EBA)은 EU 역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ECB NPL 지침에 상응하는 NPL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NPL 유통시장] 2018년 여름까지 EU 집행위원회는 NPL 유통시장을 장려하기 위한 EU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8) 백테스팅(Back-testing)은 현재의 투자전략 및 투자모형을 과거 시점에 적용했을 때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

9) PWC(2017), *Non-Performing Loans: Leveraging the right strategy to optimise your company's balance sheet.*

10) Council of the EU(2017), *Banking: Council sets out action plan for non-performing loans.*

- [추가적 부실채권 처리정책]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부실채권 축소 및 신규 부실채권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패키지를 2018년 봄에 발표할 예정임.¹¹⁾
 - [EU차원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EU의 은행 및 정부보조 원칙하에서 회원국별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자산관리회사(AMC: Asset Management Companies)를 설립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공¹²⁾
 - 개별 회원국별 부실채권 처리에 관한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별 자산관리회사를 설립
 - 자산관리회사 설립의 기본원칙은 EU의 정부보조 및 은행회생·정리절차에 부합하는 것임.
 - 자산관리회사는 부실채권 거래시장에서의 정보와 투명성을 개선하고, 신규 투자자들의 거래시장 진입을 장려함으로써 부실채권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부실채권 유통시장 육성] EU 집행위원회는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데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유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함.
 -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유럽은행들은 자체 워크아웃 기구를 주로 활용해왔으나, 대규모 부실채권 상각하는 데 자본과 전문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됨. 결과적으로 부실채권 거래가 전체 부실채권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그림 2 참고).
 - 글로벌 싱크탱크인 브뤼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실채권 거래가 활성화됨으로써 ① 복수의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자산을 그룹으로 매각하고 ② 다양한 형태의 대출자산을 동시에 처리되며 ③ 선순위채권(senior debt) 발행을 통한 채무위기 기업의 회생가능성 제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¹³⁾
 - 자산관리회사는 대출자산의 종류, 가치평가, 질(quality)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 기준에 따라 거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담보 채권자 보호 강화] 담보 채권자(secured creditors)인 유럽은행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담보 대출에 대한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시행함.¹⁴⁾
 - EU 집행위원회는 비사법적 집행(out-of-court enforcement)을 통해 담보 채권자인 은행들이 신속하게 담보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EU 회원국 재무부 및 법무부 실무자들은 2017년 11월 모임을 갖고 담보 채권자 보호를 위한 핵심 방안 및 관련 법적 고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건전성 방어조치 도입] 신규 부실채권에 대한 법적인 건전성 방어조치(statutory prudential backstops)를 통해 대손충당금 부족 위험을 개선함.
 -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평균 대손충당금 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점. 그러나 추가적인 손실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효과적인 부실채권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EU 차원의 공동의 최소 대손충당금 도입 및 충분한 대출손실 커버리지 기준, 부실위험노출액(NPE, Non-performing exposure)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신규 부실채권 문제에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함.¹⁵⁾

11) European Commission(2018), "First Progress Report on the Reduction of Non-Performing Loans in Europe," COM(2018) 37 final.

12) EU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2009), *Communication on the Treatment of Impaired Assets in the Community Banking Sector*.

13) Lehmann(2018).

14) AECE(Accelerated Extrajudicial Collateral Enforcement).

15) EBA는 NPL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상이한데서 기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NPE 개념을 도입하려 함. EBA가 은행감독보고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NPE는 i) 90일 이상 연체되고, ii) 채무자가 채무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받는 대출을 의미함.

나. 은행동맹 완성을 위한 정책패키지

- 2017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까지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완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으며, 16) 계획대로 은행동맹이 2018년 중 완료된다면 유럽은행 리스크 개선 및 위기재발 방지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됨.
- 은행동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역내 은행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안되어 현재 논의 중임.
 - 은행동맹은 단일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단일정리기구(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단일예금보험기구, 단일감독규정 등으로 구성됨.
 - 2012년 합의된 은행동맹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단일감독기구 → 단일정리기구 → 단일예금보험기구”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
- EU 집행위원회는 은행동맹을 2018년까지 완료하기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로 ① 단일예금보험제도 ② 재정방어벽 도입 ③ 국채담보부채권 도입 ④ 감독대상 확대 등을 발표함.

그림 5. 은행동맹을 위한 제도 도입 및 향후 추진 과제

기 시행중인 제도 (단일규정)	기 시행중인 제도 (은행동맹)	발표된 향후 추진 과제 (은행동맹)
자본 및 유동성 기준		기존 NPL 축소
은행거버넌스 기준	ECB 내 단일은행감독 기구에 의한 은행감독	잠재적 NPL 증가 대비
강력한 은행감독	단일정리기구를 통한 은행정리	NPL 정리를 위한 감독기관의 권한 명확화
은행 투명성 제고	납세자 보호를 위한 단일정리기금 조성	NPL 투명성 제고
국별 예금보장제도를 통한 예금자 보호	(진행중) 단일예금보험제도	대형 투자기관에 대한 단일감독기구 감독
파산은행 관리에 대한 공동의 규정	단일정리기금에 대한 공동의 지원	
	(고려중) 국채담보부채권을 통한 민간부문 리스크 완화	

자료: European Commission Online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단일예금보험제도] 기존에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EU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보다 점진적인 단일예금보험제도(EDIS, 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를 제안함.

16) 단일은행감독기구와 단일정리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함. 오태현, 김준엽(201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5년 단일예금보험제도안에서는 단계별 접근방식을 통해 2024년까지 단일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¹⁷⁾
 - 제1단계(~2020년): 각 회원국의 예금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단계로, 회원국별 예금보장제도(DGS, national Deposit Guarantee Scheme)는 기금 고갈 시에만 EDIS의 기금을 사용
 - 제2단계(2020~2024년): 공동보장을 제공하는 단계로, 회원국별 DGS는 자국 예금보장기금이 고갈되기 이전이라도 EDIS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
 - 제3단계(~2024년): 단일예금보험제도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로, EDIS가 회원국의 DGS를 완전히 대체
- 이번에 새롭게 제시된 제안에 따르면, 제1단계인 회원국 예금보험제도 보완단계와 제2단계인 공동보장단계가 수정되었으며, EDIS 설립일정에 맞춰 회원국별 예금보험제도 간 조화를 추진함.
 - 보완단계에서 역내 은행의 파산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EDIS가 회원국 DGS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음.
 - 공동보장단계에서는 EDIS가 개별 은행들의 파산에 따른 손실을 떠안음으로써 국별 DGS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EU 역내로 은행파산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확산되는 효과가 기대됨.

■ [재정방어벽 설치]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정리기구(SRM, Single Resolution) 설립과 함께 조성된 단일정리기금(SRF, Single Resolution Fund)을 지원하고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방어벽(Fiscal backstop)의 설치를 제안함.

- 은행의 정리절차와 관련된 수단 및 기금이 활용된 후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유럽 안정화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를 유럽통화기금(ESF, European Monetary Fund)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임.
 - 최종대부자로서의 EMF 설립은 유럽재정위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특히 재정지원의 경우 의사결정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 [국채담보부채권(SBBS, Sovereign Bond-Backed Securities) 도입] 2018년 중 입법안이 예정되어 있는 국채담보부채권은 은행재무제표 다변화를 통해 재무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통화동맹 심화보고서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임.¹⁸⁾

- EU 집행위원회는 은행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리스크 경감조치(de-risking)를 통해 은행재무재표상 재무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채담보부채권 발행을 논의함.
 - 은행, 보험 및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비용으로 국채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함.
- 국채담보부채권은 유로존 회원국채를 하나로 묶어 새롭게 증권화하는 것으로, 채권에 대한 유로존 차원의 공동보증을 요구하는 유로본드와 달리 개별적으로 회원국이 책임을 지는 구조임.¹⁹⁾

17) European Commission(2015), "Proposal for a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U) 806/2014 in order to establish a European Deposit Insurance Scheme," COM(2015) 586 final.

18) European Commission(2017), *Reflection paper on the Deepening of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19) 유로존 차원의 보증을 전제로 하는 유로본드는 건전재정 악화 및 독일의 차입비용 증대 우려를 이유로 독일이 강하게 반대했음. 유로본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보고서를 참고. 강유덕 외(2012),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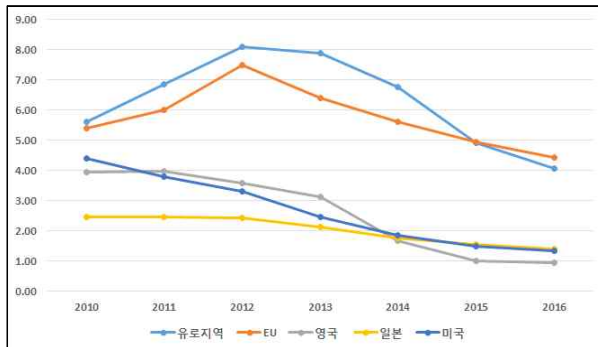
3. 평가 및 향후 전망

■ 유럽은행의 취약성지수 개선, 주요 리스크 중 하나인 부실채권의 축소 및 유럽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은 긍정적임. 그러나 다른 주요국 및 EU의 위기이전과 비교할 때 리스크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유럽은행 리스크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전반적인 부실채권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규모가 여전히 위기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바,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 해소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EU의 부실채권 비율이 2.8%임을 고려할 때, 현재 부실채권 비율은 높은 상황임. 특히 남유럽 국가들의 높은 부실채권 비율(그리스: 46.9%, 키프로스: 33.4%, 포르투갈: 15.5%, 이탈리아: 12.2%)은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함.
- 2016년 기준 주요국의 부실채권 비율과 비교할 때, EU는 미국(1.32%), 일본(1.40%) 수준을 크게 상회함.
- 취약성지수(VIX, Volatility Index)가 브렉시트를 포함한 정치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2017년 중 꾸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자산에 투자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리스크 누적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주요국의 NPL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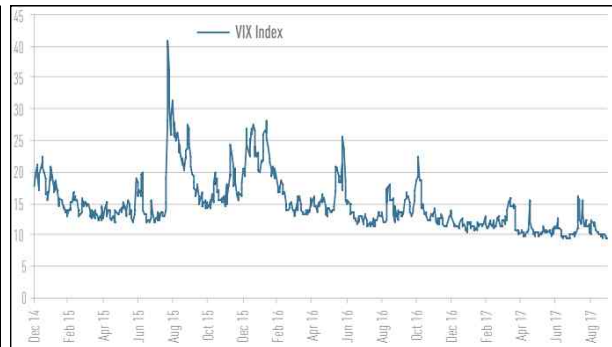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World Bank DB(검색일: 2018. 3. 5).20)

그림 7. 취약성 지수(VIX)

(단위: %)



자료: EBA(2017), p. 15.

■ 2018년 양호한 경기성장률을 바탕으로 EU 및 회원국 차원의 은행 리스크 정책대응 노력 결과에 따라 유럽은행 리스크의 추가적인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및 EU의 경기회복세에 힘입은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과 가계소득 증대는 유럽은행들의 부실채권 조정 및 수익성 증대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및 국채시장의 시스템 리스크와 은행디폴트 가능성이 2017년 중 낮게 유지되고 있음(그림 8 참조).
- 2018년 EU 경제는 2.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최근의 경기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말까지 은행동맹을 완성하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은행 리스크가 크게

20)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FB.AST.NPER.ZS?view=chart>.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나, 회원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해 계획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함.

- 2018년 봄, 은행동맹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바, 실효적인 정책은 은행 리스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북유럽 국가 및 독일을 중심으로 현 은행동맹 방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갖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됨.²¹⁾ 룩셈부르크는 국내 높은 은행비중으로 인한 부담 기증을 우려하고 있으며, 독일은 은행동맹 출범에 따른 독일의 부담 증가가 독일국민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함.²²⁾

그림 8. 금융국채시장 시스템리스크 및 은행디폴트 가능성



자료: Bloomberg and ECB Calculation.

표 2. EU 경제 및 인플레이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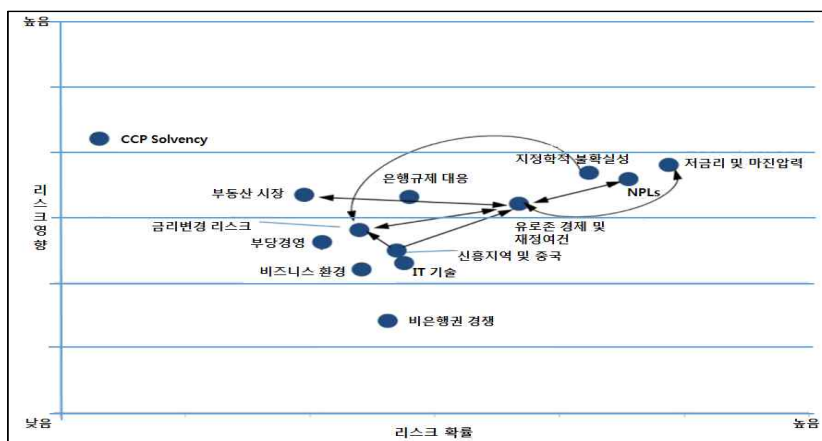
(단위: %)

	GDP		인플레이션	
	2017	2018	2017	2018
독일	2.2	2.3	1.7	1.6
프랑스	1.8	2.0	1.2	1.5
영국	1.8	1.4	2.7	2.7
유로존	2.4	2.3	1.5	1.5
EU	2.4	2.3	1.7	1.9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 은행부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급변하는 은행별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은행 리스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유럽은행들이 IT 기술의 사업 적용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와 같은 IT 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운영비용 개선이나 새로운 수익기회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KIEP**

그림 9. 2018년 중 유로존 은행 주요 리스크



주: 화살표는 하나의 리스크가 다른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을 의미.
자료: ECB Banking Supervision Online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1)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EPC: European Policy Center)의 Fabian Zuleeg 박사와의 면담(일시: 2017. 11. 9, 장소: EPC 연구실).
22) 유럽중앙은행 내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일시: 2017. 11. 8, 장소: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는 독일의 결정에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은행동맹 출범을 위해서는 독일의 의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함.

부록 표 1. EU 회원국 NPL 비율²³⁾

(단위: %)

	NPL 비율		민간부문 NPL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	
	2017년 2/4	2016년 2/4	2017년 2/4	2016년 2/4	2017년 2/4	2016년 2/4
벨기에	2.8	3.5	4.0	4.5	50.1	48.6
불가리아	12.1	14.0	19.2	22.4	54.8	53.2
체코	2.9	4.6	5.3	6.7	53.1	45.4
덴마크	2.9	3.6	3.2	4.0	38.4	39.0
독일	2.3	2.8	4.3	5.0	43.6	42.4
에스토니아	2.0	2.1	2.5	2.7	44.6	50.2
아일랜드	11.6	14.6	15.8	18.9	37.6	42.2
그리스	46.9	47.2	50.6	50.1	49.2	49.8
스페인	5.3	5.9	7.1	7.7	59.9	59.8
프랑스	3.4	3.9	4.6	4.9	59.7	60.2
크로아티아	11.7	11.6	16.5	16.9	68.8	71.8
이탈리아	12.2	16.2	15.9	20.0	52.9	49.5
키프로스	33.4	37.6	52.7	56.2	47.1	38.8
라트비아	5.9	5.5	9.3	8.9	43.8	53.6
리투아니아	3.7	5.0	4.9	6.5	36.3	37.5
룩셈부르크	0.7	0.9	1.8	2.3	51.6	39.2
헝가리	10.4	15.0	15.3	23.0	66.4	63.8
몰타	3.7	4.6	6.7	7.4	41.8	44.3
네덜란드	2.3	2.6	3.0	3.1	38.3	41.8
오스트리아	4.1	6.0	5.7	7.5	62.6	59.1
폴란드	6.6	6.7	7.2	7.3	58.0	60.5
포르투갈	15.5	17.6	15.5	17.6	49.4	47.6
루마니아	8.5	11.3	11.0	15.3	69.4	62.3
슬로베니아	11.4	16.3	14.7	21.2	70.4	70.1
슬로바키아	4.1	5.1	4.7	5.7	68.9	63.4
핀란드	1.4	1.4	2.1	2.1	31.9	35.8
스웨덴	1.2	1.2	1.4	1.5	34.8	34.5
영국	1.6	2.2	2.5	2.2	40.6	39.4
EU	4.6	5.6	4.7	5.6	50.8	47.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b), p. 5.

23) European Commission(2018b),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2018) 33 final/2.